



◇(부모은중경) 최고본으로 알려진 장단 화장사판.

'부모은중경' 最古 언해본 발견

〈불설대부모은중경〉 언해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단 화장사판(1553년 판)이 일본 동경대 소장(小倉)문고에 있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필재(서울대 박사과정)씨가 <진단학보> 84호에 발표한 '화장사판 <부모은중경언해>에 대하여'란 글에서 밝혀졌다.

유씨가 일본 유학중이던 96년에 발견한 〈부모은중경〉은 책표지에 은중경이라 쓰여 있으며 크기는 25.0cm×17.5cm, 본문 26장, 간기(刊記)·시주자명 1장 등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뒷면에 '가정32년 계축6월일 경기도 장단지 보봉산 화장사 개관(嘉靖三十二年 癸丑六月日 京畿道 長端地 寶鳳)

日 동경대 소장문고 소장
1553년 간행 장단 화장사판

山 華藏寺 開板)이란 간기가 있어 화장사 판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에 소장된 송광사판(1563년판)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심법계승(十法界頌)·십팔지옥(十八地獄) 3장과 발원문 부분이 없다. 또 송광사판은 23·24장이 필사돼 있으나 화장사판은 그렇지 않으며, 송광사판에는 별로 없는 방점의 표기도 나타나 구별된다.

유필재씨는 "세밀한 곳에서는 차이를 보

여 삽화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나 대체로 일치해 송광사판이 화장사판 혹은 그에 앞선 원간본의 복간이라는 기존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의 효사상을 나타내는 〈부모은중경〉은 16세기부터 언해돼 현재 20여종의 이본(異本)이 남아 있다. 최고본은 1553년 경기도 장단에서 간행된 화장사판이며, 변상도의 완벽함과 섬세함은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개간하도록 하고, 김홍도의 그림이 첨가돼 있는 수원 용주사판을 꼽을 수 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21>

세상 일 구름만 못하다

경양대사의 문집에 〈두류산 회화기(頭流山會話記)〉가 있다. 이 기는 1803년 보은군수와 옥천군수가 천왕봉에 오르기 위해 찾아와 대화하면서 주고 받은 장편의 기행문이다. 이 기행문 중간중간에 주고 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게 한다. 스님들

과 지방 장관들의 격의없는 사귀기를 엿보게 하는 자료의 하나이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유불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다운 지식인은 고승들과의 사귀기가 통도자 못지 않았으니, 다음 시에 그러한 단편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

보은군수가 먼저 읊었다.

萬岳青山萬巖雲 (만적청산만적운)
 依依湖嶽共瞻雲 (依依湖嶽共瞻雲)
 (유유호령공첨운)
 今朝別意知多少 (今朝別意知多少)
 (금조별의지다소)
 萬岳青山萬巖雲 (萬岳青山萬巖雲)
 出岫遙同彭澤雲 (出岫遙同彭澤雲)
 (출수원동팽택운)
 一棹長煙江東雲 (一棹長煙江東雲)
 (일조장연강동운)
 今朝聚散還如許 (今朝聚散還如許)
 (금조취산환여허)
 笑指天王峰上雲 (笑指天王峰上雲)
 (소지천왕봉상운)
 大さが 이어 읊었다.
 山雲隨客我隨雲 (山雲隨客我隨雲)
 (산운수객아수운)
 一席靑雲當白雲 (一席靑雲當白雲)
 (일석청운부백운)
 送客出門成望遠 (送客出門成望遠)
 (송객출문성창망)
 始知人事不如雲 (始知人事不如雲)
 (시지인사불여운)

일만 겹겹의 푸른 산 일만 겹겹의 구름
 아득히 영남 호서에서 함께 그 구름 보네
 오늘 아침 이별의 뜻 어느 정도인가
 일만 겹겹의 푸른 산 일만 겹겹의 구름.
 옥천 군수가 화답했다.
 산에서 솟을 때는 팽택의 구름이더니
 한 술잔의 긴 추억은 강동의 구름일세
 오늘 아침 만남 이별도 저와 같더며
 웃으며 가리키는 천왕봉의 구름.
 산 구름 나그네 따르고 나는 구름 따라
 한 자리에 푸른 구름이더니 다시 흰구름
 손님 전송 문에 나서 쓸쓸히 바라보니
 인간세상 일 구름만 못함 이제 알겠다.

구름 雲자로 운을 삼아 쓴 강동의 구름으로 상징하였다. 대사는 인생의 회합집안이 저 구름과 같으면서도 구름만 못하다 하여 각기 적의한 자신들의 의지를 담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금상에 도안스님作 '정토발원문' 조계종 창작찬불가 당선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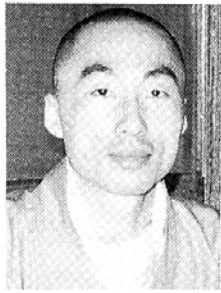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한 제1회 창작찬불가 공모에서 도안스님(광주 향림사)의 합창곡 '정토발원문'이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했다.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찬불가공모에는 독창곡 12곡 중창 5곡 합창 13곡 등 총 30곡이 응모해 은상에 지장보살에찬(김현지 작·합창곡)과 '까지움음(박상훈 작·합창), 동상은 '공덕하세(장기찬 작 합창)', '불단앞에서(양병철 작·독창)', 장려상은 부처님께 향한 마음(이순희) '수행일기(이용택)' '성불하시어(이정민)' '아제 아제(홍기성)' 등 4곡이 선정됐다.

만18세 이상 기성 및 신인 작곡가들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창작찬불가공모 당선작들은 올 하반기에 발표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공모작들에 대해 심사위원인 김동환교수(중앙대 음대)와 박범훈단장(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 성의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내년이 기대된다"면서 "금상작인 '정토발원문'은 리듬이 경쾌하고 누구나 따라부르기 쉬운 민요풍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찬불가공모 금상 수상 도안스님

"밝고 경쾌한 찬불가 많아야"

"제가 향림사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며 찬불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찬불가에 대해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기존 찬불가들이 대부분 느리고 어두워요. 각종 불교행사나 법회때 쉽게 따라부를수 있는 밝고 경쾌한 곡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1회 창작 찬불가공모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뜻밖에도 스님이다. 더구나 도안스님은 전남대와 청주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폴란드 소련음악원까지 졸업한 수재자라 더욱 놀라움을 준다. 불교계가 여러 분야에서 인재부족을 겪지만 취약한 장르인 음악계, 특히 작곡에서 이같은 재능 있는 사 인물이 나온 것은 불교계 전체의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들. 도안스님은 94년 제26회 난파공물에서 '목관4중주'로 작곡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은사스님인 천운스님(해남 대둔사 주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정토발원문 가사를 접하고 '바로 여기에 곡을 붙여야겠다'고 생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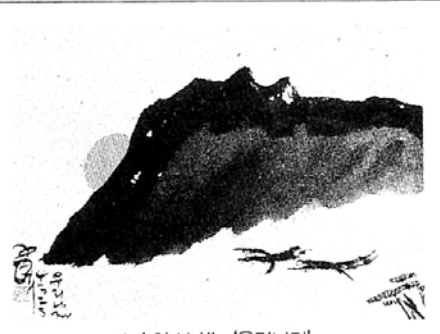
수안스님 개인전

25일까지 부산 세원백화점
그림·병풍등 30여점 전시

3월의 봄빛처럼 따스하고 맑은 그림, 수안스님(봉동사 축서암)의 개인전이 부산 세원백화점 신관 11층에서 열리고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는 진주 천흥사(주지 효공)대웅전 건립을 위한 특별전으로, 수안스님의 그림과 병풍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내 그림은 기도"라는 스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천진하고 해맑은 등자상, 맑고 화사한 꽃송이, 텅 빈 하늘을 나는 학을 그린 선화에서 수행자의 맑은 기품과 원력이 느껴진다.

수안스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여러차례 전시회를 가진 선화가로



◇수안스님작 '우리나라'

각종 불사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마련전시회를 수차례 가졌다.

이번 부산전시회는 중생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전하고 싶은 스님의 기원, 그 환한 소망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051)550-6256

천미희 기자

"고려대 창건 조선초엔 國刹"

경기도박물관 회암사지 시굴조사서 밝혀
'皇帝萬歲' 새긴 와편·청기와 등 출토

조선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양주 회암사지(사적 128호)가 지난 11월부터 실시한 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창건돼 조선초까지 국찰(國刹)로서의 사격을 유지해 왔음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적의 정비 보존차원에서 종합발굴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유지 매입, 주변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발굴 현장설명회에서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은 "절터 북쪽 담장지 바깥에서 유구가 확인되고, 외곽 1백m 범위에서도 절터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물들이 수습되는 등 사역(寺域)의 현저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발굴조사의 확대와 함께 주변 토지 매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표상에 노출된 조선시대 건물지 하단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고 순창자편이 출토돼 고려 명종대(12세기 후반)에 회암사지가 존재했다는 문헌기록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황제만세(皇帝萬歲)'가 새겨진 와편, '지(地)' '현(玄)' '황(黃)' 명문의 상품(上品)백자, 궁궐터에서나 보이는 청(靑)기와 등이 출토돼 국찰로서의 사격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재 지도위원들은 "전체적인 구조가 왕실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의 가람"이라며 "향후 조사의 진전에 따라 초창기의 고려시대 건물지 확인과 가람배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굴조사단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노출된 유구의 손상에 각별히 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조선초기의 불두

의하고, 행궁(行宮:왕의 임시거처)을 비롯 주변의 회암사지관련 차(茶)유적, 와요지, 채석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주군 회천읍에서는 20일 복원 추진준비위원회(위원 이상원)를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복원 및 주변정비에 힘을 방침이다. <석>

문화재 소식

부산박물관 재개관
석조여래좌상 첫 공개

부산시립박물관(관장 박유성)이 5개월간의 전시장 보수공사를 마치고 10일 종합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시립박물관은 선사고분, 미술공예, 도자, 서화, 부산역사, 민속 등 6개 상설전시관에 지역과 주제에 초점을 맞춘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는 유물 6백여점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국보 200호)과 영태2년명당석제호(永泰二年銘堂石製壺·국보 233호) 등 부산의 국보 5점 중 2점을 만날 수 있다. 처음 공개되는 석

조여래좌상도 눈길을 끈다.
"수증문화재법 제정"
박성욱씨 박사논문서 주장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누군가가 수증문화재를 발굴하고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증문화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희대에서 '국제법상 수증문화유산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욱씨는 "세계 각국이 상업적으로 수증발굴에 뛰어들고 있어 국제적 마찰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증문화유산 관련법 제정이 하루 바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 서평이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 ◆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 ◆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 ◆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 법당과 부처님, 탑 ·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업국 ☎ (02)705-5302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운영위원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운영위원스님들께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새불을 맞아 회원스님들의 건재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응맹심을 확인하며 본회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운영위원 여러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회 의 안 건 ●

1.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1. 기구 확대개편에 관한 건
1. 사무처 활성화에 관한 건
1. 본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1. 연구위원 위촉 및 역할에 관한 건(재가불자)
1. 사업안건 : 불교포럼(가칭)내용 및 일정에 관한 건

■ 일 시 : 불기 2542년 3월 20일 오후 5시
 ■ 장 소 : 조계사내 본회 사무실
 ■ 연락처 : ☎ 02)723-4302~3

※ 본회 공동의장인 진관스님의 특별사면과 석양을 환영합니다.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석담·진관 합장